

2016 부산다운 건축상 총평 - 이인희 교수

건축은 흔히 디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시각적인 대상에 관한 미적인 영역과 주어진 용도에 따르는 공간장치를 고안하는 기능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루어진다. 이 양자의 적절한 관계에 주변의 맥락을 효과적으로 가미한 건축은 지역적으로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관계들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개성 있는 형식으로 디자인한 건축들은 주변의 분위기를 일깨우고 활성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는 예들을 볼 수 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나 빌바오구겐하임미술관과 같이 널리 알려져 많은 방문객들을 유인하는 많은 건축물들이 대표적인 예로서 도시를 상징하는 역할도 한다. 그 중에는 북경 CCTV와 같이 논란을 불러온 과시적거나 실험적인 디자인도 자주 보인다.

서울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나 부산의 영화의 전당도 점차 유명세를 더해가고 있고 서울과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꼭 둘러보는 필수코스가 되었다. 이러한 건축물들이 지역 도시건축의 높은 수준과 경제적 파워를 상징하는 자랑거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부계층의 전유물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세계건축의 현대사에 남을 작품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국가나 도시의 상징적 공공성의 갈증을 채워주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한편 반대의 사선에서 보면 도시의 대다수 시민계층들은 이러한 상징적 건축의 소비와는 무관하게 살아간다. 이들은 상징적 공공성이 아닌 직접 생활과 관계가 있는 사회적 공공성을 가진 도시건축의 공간을 소비한다. 특히 도시화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많은 계층들에게 있어서 건축은 작은 집이자 생활공간이며 이웃과 함께하는 장소들이다. 따라서 전술한 자본주의적 가치로서 위대한 건축보다 주민과 근린의 생활과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로서의 건축이 더욱 소중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대다수 시민들에게 있어서 건축은 이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생산되고 이들의 생활을 통하여 소비되는 건강한 환경이자 도시공간이 의미를 가진다.

부산의 원도심은 굴곡이 많은 해안선과 크고 작은 산들로 쪼개진 지형 위에 형성된 주거지와 장소들로 채워져 있다. 여타 대도시와는 달리 지형이나 도시지리학적 환경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다. 따라서 부산의 건축은 이렇듯 직접적이며 역동적인 환경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나타날 때 가장 자연스러워 보인다. 결과적으로 부산다운 건축이란 신도시공간의 창조적인 이미지로서 국제화된 일상적 형식보다도 이처럼 부산스러운 환경에 대한 섬세한 배려와 반응에 의해 조성된 공간이자 장소이며 주민과 근린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환경으로서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는 건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일반부문 금상으로 선정된 게스트하우스 다섯그루나무는 채의 불규칙한 배치로써 부지 내 작은 공간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고 재료나 규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주변 건물들과 같은 호흡으로 계획한 수작으로서 향후 주거환경 개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수 있는 작품이다.

공공부문의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해돋이마을 풍경나무는 우수한 조형이 강한 인상을 주는 소규모 백색 건축물이다. 지역의 오래 전 당산나무를 연상하는 조형에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아주 작은 복합 시설과 전망대를 결합한 주민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커뮤니티 시설이다. 한편 공공부문 은상 수상작인 강서구 생곡동의 폐기물재활용시설인 부산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자원인 캔을 디자인 모티브로 유리면을 장식하여 단정한 외관으로 디자인하고 장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일반부문 은상의 광안리 주택과 동상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복합시설인 Inter-white 그리고 단독주택 복하우스 또한 디자인과 공간계획의 건축적 우수함과 함께 주변의 가로경관을 선도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부각되는 작품이었다.

예년에 비해 올해의 작품들은 지역건설의 거품수요가 걸러진 탓인지 멋진 디자인의 대규모 건축물이 아닌 지역의 현황을 잘 반영한 소규모 작품들이 많았다. 덕분에 일상적이고 글로벌한 기세에 눌리지 않고 부산다운 건축의 속살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진 듯 하다. 내년의 작품들이 기대된다.